



PROMAT 2001 및 선진물류 탐방

PROMAT 2001

김형립 / 서영주정(주) 물류사업부 과장

(사)한국물류협회 주관 하에 시카고 물류전 및 선진물류업체 탐방이 있다기에 미국물류의 현주소를 직접방문하여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와 많은 정보를 얻고자 8박9일의 탐방 길을 나섰다.

UPS CASH(UNITED PARCEL SERVICE CHICAGO AREA CONSOLIDATE HUB)는 제너럴모터스 공장부지 및 건물을 인수하여 설립한 HUB로써 하드웨어적인 규모나 설비투자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였다. 이를 운영키 위해 100개의 캐릭터를 조합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MAXI-CODE를 자체 개발하여 상품정보관리를 하고 있으며 롤러컨베이어, SHORTING SYSTEM이 짜임새 있게 되어 있어 대량의 입고·일시분류·배송이 가능한 SYSTEM으로 놀라움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WWW.UPS.COM) MARSHALL FIELD DEPARTMENT DISTRIBUTION CENTER는 도심지에 위치한 도심지 유통물류센터로 6층의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처음 느끼기엔 보관과 배송을 하기에 힘든 고가의 가구류를 어떻게 처리할까 의구심을 갖았는데 전산화된 SYSTEM 구축 및 고가 가구제품에 맞는 RACK

설비 및 제품특성에 맞는 PALLET나 STORAGE BIN등의 사용으로 자동화 설비 구축 없이 수작업으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등이 물류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생각되었다.

PROMAT 2001은 물류설비 및 시스템업체, 포장, 컨테이너, 선적설비, 재고관리 및 운영기술업체, 도크 및 창고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업체 자동인식 설비 및 운영시스템 업체 등 약 6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업체 면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물류의 각 단계별, 기능별로 다양한 형태의 운반기기(무인대차, CONVEYOR, FORKLIFT-TRUCK), 보관설비(RACK, STORAGE SYSTEM), 정확하고 신속한 배송을 위한 분류기기(SORTER)등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들을 효과적으로 결합,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류를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과 새로운 이익의 창출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또한 출품된 설비 및 기기들은 외견상으로는 국내 유수의 전시회나 업체방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평이한 것이었으나 좀더 상세히 접근하여



▲ PROMAT 2001 개막식

관찰한 결과, 과연 미국이 물류의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다 싶을 정도로 합리성과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춘 다양하고 기발한 응용과 디테일을 보여주었다.

그 예로서, 표준화에 근간한 3방향 지게차, 다양한 형태의 핸드 파렛트 트럭, 소화물 처리를 위한 모듈화된 박스, 그리고 드라이브-인 랙의 하나만 하더라도 경우에 플로우 랙과 결합한 형태, 합리적인 레일설계, 전자감응식 분리형 포크가 부착된 지게차를 사용하는 등 공간 절약과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설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합리적인 전산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BAR-CODE나 MAXI-CODE를 이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물류정보를

한번의 SCANNING만으로 파악, 처리하는 시스템은 특별한 운영기술이 아닌 기본적인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당사도 이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탐방 느낌은 각 기업에 맞고, 상품에 맞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화 정보관리 개발을 하여 실물 부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를 고려하여 이에 따라 물류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객에게 화물 정보의 정확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물류시스템 전산 개발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글로벌한 물류시스템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므로 국내 물류도 끊임없는 물류 프로그램개발 및 선진물류 탐방을 하여 정보 및 시스템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K]